[슬픔의 철학-롤랑 바르트 '애도 일기' 김진영 선생님 10강 강의록]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는가

모방범

나이로 보면 소년으로 분류되는 그 '소년'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지면을 통해 그 소년이 키우던 고양이며 몇 번씩이고 본 영화가 무엇인지 알렸다. 아주 단순하고 그가 왜 좋아하는 건지 나오지 않았지만 신문에서는 그 영화가 잔혹한 살인을 다루고 있다는 것과, 유해한 문화와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짧게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폭력적이고 끔찍한 영화들은 이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화에서든, 문학에서든 마찬가지다. 범죄를 그리는 소설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되었고 모든 모방의 수를 제시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문화에 대해 더더욱 경계하고, 동시에 동경한다. 그 문화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특이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며 동시에 자신과 선을 긋는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전염'을.

바르트는 독서는 텍스트와 독자가 만나는 순간이며, 그 순간 텍스트도 독자도 생각하지 못한 결말이 나온다고 말한다. 이 때 중요한 건 독자가 텍스트에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아니다. 텍스트에게도 에고ego가 있다. 어떤 걸 '감상'한다는 건 얼핏 보면 우아하고 한없이 지적인 행위이며, '깜박' 졸아서는 안될 것 같지만 사실 피로한 일이다. 그건 전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끝없이 '감상전'을 벌인다. 어떤 쪽이 이길까? 누가 이긴다 하더라도, 설령 그게 독자의 승리라 해도 그게 과연 진정한 독서인가?

결국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쉽게 텍스트 쪽으로 끌려 들어가면, 우리는 순식간에 매몰되고 만다. 텍스트는 아름답지만 그래서 위험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미로처럼 복잡하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한 순간 역습을 당하고, 스친 것 같은 상처가 점점 깊어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 어린 시절에 '나이 든 책'과 '나이 어린 책'을 구분했던 건,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너무 이르게 '두려움'을 깨닫는 것도 나쁠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호기심'을 내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 하지만 정확한 건, 책을 읽으면서 성장한다는 건 제대로 줄을 잡는 법과 몸을 뒤로 당기는 법, 오래 버티는 법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 '소년'은 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까. 전염이 아니다. 오히려 전염되기를 원했다. 유동하는 근

대에서는 어떤 것도 견고하지 않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유령이다. 모든 껍데기는 하루면 벗겨진다. 그럴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에고를 모방해 자신의 것처럼 만든다. 그게 가장 쉽다. 텍스트와 문화는 아무 죄가 없다. 그 공허에 끌려간 사람에게도 죄는 없다. 끌려갈 정도로 반투명한 그들은 바로 우리가 낳은 것이다.

댈러웨이 부인은 직접 꽃을 사겠다고 말했다

일상은 얼마나 놀라운가. 여행을 떠나는 순간 구질구질했던 일상은 추억처럼 곱게 채색된다. 떠날 때만 해도 지긋지긋했던 것들은 떠나고 온 뒤에 어느 정도 위치가 바뀌어 있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타인의 기나긴 여행 앞에서도 이를 깨닫는다. 기나긴 여행, 죽음 앞에서. 일상의 가치들은 말없이 포진해 있다가 햇빛이 약간 각도를 바꾼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눈부시게 빛난다. 하지만 그 순간을 '붙잡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건 너무 늦다. 바르트 또한 마찬가지로, 나중에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하지만 그 앞에서 그는 '시간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겨울 정원의 사진' 앞에서 그가 원하는 건 어린 시절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윤회적 환생'이다. '자연스러운' 일상이란 없다. 전혀 이질적인 조각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맞물리고 꿰매져서 하나의 조각보가 되고 손수건이 된다. 누구든 자신의 조각보를 들여다 보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너무 늦은 순간에야 자신의 조각보를 들여다 보게 된다.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한 치의 후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했던 그녀의 완벽한 생은 아주 조그만 균열의 발견으로 인해 감춰 두었던 조각보를 목격하게 된다.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의 후반부에서 댈러웨이 부인의 '자살'을 생각했으나, 후에 그 자살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 자신의 조각보를 들여다 보고, 그 조각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바르트는 그 일상의 조각보를 받아들인다. 그가 윤회적 환생을 도모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건 아니다. 그는 인정한 것 뿐이다. 자신을 지탱해 왔던 건 사실 자신의 견고한 에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받쳐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낮과 낮 사이, 밤과 밤 사이

두 가지의 용기가 있다. 하나는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부하는 것이다. 단순히 남

에게 해가 될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걸 거부하는 게 아니다. 외부의 도덕이나 계산이 아닌 그 자신의 자발적 도덕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이 그 용기들의 근원이다. 아주 아끼는 고양이나 인형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일 것이나 대부분은 핀잔이나 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지 호기심을 보일 것이다. 결국 그 인형을 버리게 된다. 가치는 내보이는 순간 더럽혀진다.

허나 이러한 과정이 두렵기 때문에 비밀로 두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의 사회 앞에서 상업화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비밀은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완곡하지만 단호한 제스쳐'다. 그들의 게임에 끼지 않는 것,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가치를 간직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건 용기가 아닌 폭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 수많은 이상들이 그렇게 스러져 갔다. 후반부는 모두 음모론과 서로를 지목하며 '마녀사냥'을 벌였다.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전구에 새까맣게 타서 들러붙어 있는 나방 시체들은.